

求禮 石柱關七義士에 대한 追慕詩文 考察

김영봉*

〈차 례〉	
1. 序言	
2. 史蹟地 石柱關의 유래	
2.1 丁酉再亂 당시 求禮地方 의병운동	
2.2 倡義 擧兵 意義와 石柱關 연혁	
3. 石柱關七義士에 대한 追慕 詩文	
3.1 제명각 시판의 시문 분류와 특징	
3.2 後孫들의 詩	
3.3 後孫이 아닌 경우의 詩	
4. 結語	

<국문초록>

1597년 정유재란 당시 구례 석주관에서 칠의사와 의병들이 순절하였다. 본고는 구례 석주관의 제명각에 새겨져 있는 이들에 대한 추모 한시 50여수를 분석한 것이다.

제명각에 새겨진 시판의 시문들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써진 것들이었다. 칠의사의 후손이나 구례의 문인 또는 구례 관인들이 제사를 올리면서 추모시를 썼고 시판의 시를 새긴 것이다.

시문은 형식상으로 모두 칠언을 시었다. 칠의사의 한사람이었던 왕득인의 후손인 개성 왕씨들의 작품이 가장 많았다. 후손이 아닌 경우에는 매천 황현(1855~1910)의 시문이 제일 많았다. 또 매천 주변 인물들의 시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칠의사의 후손이나 유제앙을 비롯한 매천 주변의 인물들이 1901년 칠의각을 만들면서 추모시문을 썼고, 시판에 시문을 새겼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은 이 시기에 개성왕씨 가문과 매천이 구례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또한 구례의 시단이 크게 융성하고 있었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석주관의 시문들은 조선 말기에 한문학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이 시문들의 주제는 한결같이 왜란 당시 칠의사의 충절을 찬양하고 석주관의 사적을 읊은 것으로, 우리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들이었다.

핵심어 : 정유재란, 구례 석주관전투, 칠의사, 한시, 개성왕씨, 매천 황현 시, 칠언율시

1. 序言

구례 石柱關 史蹟地는 1597년 丁酉再亂 당시 倭賊에 항거하다 殉節한 七義士와 구례 현감 李元春 등 墓 8기와 僧兵 153명과 義兵에 참여했던 1,000여명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이 석주관 사적지는 日帝時代를 거치고 해방과 6.25 등 격동의 시기를 거쳐 1963년에 와서야 국가 지정 문화재 史蹟 106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1990년에 구례군과 목포대학교 박물관이 이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求禮石柱關七義士』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는 漢文學의 쇠퇴를 반영하듯 석주관 齊明閣에 새겨져 있는 詩板의 漢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5년 구례군지 편찬위원회에서 『求禮群誌』(上·中·下)를 편찬하면서 상권 297쪽에서 306쪽까지 ‘七義關原韻’이라는 제목 하에 詩板의 한시 29수를 번역, 소개한 것이 처음이었다.

본 연구자는 2008년 후반기에 진 구례문화원장이며, 구례 향토문화원 구회장인 문승이 선생의 도움을 받아 석주관 제명각에 있는 시판의 한시

를 재조사하고 번역하였다. 조사 결과 석주관 제명각 시판에 새겨진 한시는 모두 50여수 있었다. 구례 향토문화연구회에서는 이 시들을 다시 정리하여 2008년 말 『石柱關七義士詩文』이라는 이름으로 번역 출판하였다. 本稿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석주관에 새겨진 시판의 追慕 漢詩文을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기위한 선행과정으로 1597년 정유재란 당시의 남원성 전투와 관련하여 석주관 사적지에 대해 그 유래와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석주관 시판에 새겨진 50여 수의 추모 한시를 분석하였다. 시문의 분석 방법으로 석주관에 새겨져 있는 시판의 추모 시문을 칠의사의 후손이 쓴 시와 후손이 아닌 경우로 나눈 다음, 家門別 姓氏別로 분류하고, 대표 시문을 발췌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求禮群誌』(上)권에 소개되지 않았던 시문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석주관 시판에 새겨져 있는 이들 시문들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梅泉 黃瑛¹⁾이 쓴 칠의각 상량문을 비롯한 몇 편의 산문도 곁들여 살펴볼려 한다.

2. 史蹟地 石柱關의 유래

2.1 丁酉再亂 당시 求禮地方 의병운동

석주관은 고려 때부터 鎭이 설치되어 왜구의 침략을 방어하는 요새가 되었다. 지리상으로 구례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을 거슬러 곧바로 내륙 남원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하지만 조선이 건국되고 200여 년이

1) 黃瑛(1855~1910) : 광양 태생으로 1888년 소과에 장원하였으나 조정의 부정부패에 실망하고 구례로 돌아와 교육에 종사하면서 역사서 『梅泉野錄』 등을 남겼다. 조선 후기 3대 시인의 한 사람으로 경술국치 때 絶命詩 4수1편을 남기고 자결 순국하였다.

지난 1592년 4월 壬辰倭亂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兵燹으로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여수지방을 지키고 있었던 전라좌도수군절도사 李舜臣의 활동으로 전라도가 보존이 될 수 있었다. 그 틈을 타 조정에서도 부랴부랴 석주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92년 9월 전라도 방어사 郭嶸으로 하여금 운봉 팔양현과 석주성을 쌓아 적을 방어하게 하였다.

구례 지역에 왜군이 처음 침입한 것은 1593년 7월 3일이었고, 7월 5일에는 왜군이 석주진성을 공격하였다. 이 성은 석축으로 된 견고한 山城이었지만 함락당하여 구례 현성에 들어온 왜적은 다치는 대로 약탈과 살육을 감행하였다.

그 뒤 명나라 대표 심유경이 중심이 되어 日本과 전쟁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다시 1597년(선조 31년) 7월 倭將 고시니 등이 대군을 이끌고 침입한 것이 丁酉再亂이었다. 왜군들은 임진왜란의 실패가 전라도를 장악하지 못한 것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1차 목표는 전라도 장악에 있었다. 그즈음 조선 조정에서도 남원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유년 6월 중순에 명나라 장수 부총병 楊元으로 하여금 군사 3천여 명으로 남원성을 지키게 하였다. 왜군은 7월 15일 칠전도 싸움에서 삼도수군통제사였던 元均과 전라우수사 李德禛 등의 조선 水軍을 몰살시키고, 그 기세를 타 구례지방으로 쳐들어오게 되었다. 8월 6일 왜군이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오자 석주진을 지키고 있던 구례 현감 李元春은 소수의 병력으로 구례지방을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례성으로 돌아와 왜군이 사용할 만한 것들을 모두 소각하고 수하에 貢生 한 사람을 데리고 남원으로 탈출하였다. 이리하여 왜군은 8월 7일 어떠한 저항 없이 구례읍에 들어와 갖은 약탈과 도륙을 일삼게 되었다. 남원으로 퇴각했던 이원춘은 그곳에서 남원성을 방어하다가 南原府使 任鉉, 兵使 李福男 등 6인과 함께 순절하였다.²⁾ 남원성이 함락되던 8월 16일에는 중

2) 宋正炫, 「丁酉再亂과 湖南」, 『朝鮮社會와 壬辰義兵 研究』, 학연문화사, 1998, 122~126쪽.

일토록 처절한 전투가 계속되었고, 왜적에 대항하다 일만여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른바 萬人義塚을 남기는 전투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구례의 선비 王得仁³⁾은 1597년 8월 16일 장정 50여명의 義兵을 거느리고 당시 남원 의병장 趙慶男⁴⁾을 만나 왜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책을 논의한 후, 돌아와 수백 명의 의병들을 모집하여 석주성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주변의 상황은 감히 의병을 모집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남원성이 함락된 데다 전년도에 죄 없이 죽음을 당한 金德齡의 冤死事件의 분위기도 있었다.⁵⁾

남원성 전투가 패배된 후 1개월이 지난 9월 하순경에, 王得仁을 비롯한 현지 양만들은 ‘임진년에 郭再祐가 영남지방을 수복한 것과 같이 구례 지방을 회복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여 의병운동의 호기임을 주민들에게 역설하였다. 그렇게 하여 왕득인 이하 50여명의 제1차 석주관 의병이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왜군의 대부대와 맞서 싸웠지만 결국 9월 하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모두 전사하여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였다. 그 이후로 석주성은 완전히 왜군 후군의 통로가 되어 버렸다.

왕득인이 석주관에서 순절한 후, 한 달쯤 지나 11월 초 구례 읍내에서 20대의 젊은 선비들을 주축으로 다시 대규모의 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각 면으로부터 모여든 李廷翼, 韓好誠, 梁應祿, 高貞菑, 吳琮과 왕득인의 아들 王義成(1574~1641) 등 이른바 6義士軍이 합세하여 결성된 구례지방의 의병 연합체였다. 이들은 각자 家僮을 동원한 다음, 인근 산중에 피

3) 王得仁(1556~1597) : 參判地德後孫으로 參奉 彦起의 子. 구례현 남진리에서 태어났다. 『丁酉亂에 守石柱城이라가 矢窮力盡而死하니 遺骸未收하고 招魂以葬이다. 純廟四年甲子에 贈持平하고 甲戌에 享藍田祠하다.』(『續修求禮誌』(上), 高圭泰·權鴻洙, 1962, 44쪽.)

4) 趙慶男(1570~1641) : 호는 山西. 남원 주천면 출신. 남원 의병장으로 활동했으며, 『亂中雜錄』을 남겼다. 이 책은 1582년에서 1610년까지 왜병과 싸운 사실을 비롯하여 의병장으로 활동한 내용 등을 기록해 놓아 왜란 및 당시의 사회 진반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5) 金德齡(1567~1596) : 임진왜란 때 광주 의병장으로, 충청도에서 일어난 李夢鶴의 반란을 토벌하러 갔다가 도중에 회군하였다. 이몽학과 내통하였다는 무고로 체포·구금되었으며, 혹독한 고문으로 옥사하였다.

난중인 향민들을 모아 수백 명의 의병조직을 갖추었다.⁶⁾

11월 8일에는 구례 화정리에 주둔하고 있던 조경남을 만나 다시 방책을 자문하였다. 이후 조경남 부대는 순천을 거쳐 이른날 구례로 다시 돌아와 석주에서 합세하였다. 때마침 하동 악양 방면에서 왜군들이 진군해 오므로 화개 부근에서 복병해 있다가 재빠르게 적을 엄습하여 섬멸하였다. 이 때 아군 포로 500여명을 구하는 큰 전공도 거두었다. 그리고 조경남의 부대는 11월 10일 전공을 서로 치하하면서 석주관을 떠나갔다. 6義士는 수비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하여 華嚴寺에 격문을 보내 僧兵 153명과 군량미 103석을 지원받아 의병의 사기도 올라갔다.⁷⁾ 하지만 이후로 화개, 악양 방면에서 왜장 義弘의 軍隊가 다시 대거 내습해왔다. 이 때 왕의성을 제외한 다섯 義士와 800여명의 의병과 150여 승병들이 일시에 玉碎되었고, 流血成川이 되고 말았다.

2.2 倡義 擧兵 意義와 石柱關 연혁

왕득인의 倡義 擧兵은 정유재란 중 구례 남원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義兵이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⁸⁾ 그리고 국난을 극복하려는 성격을 띠고 일어난 두 번째 석주관 의병은 당시의 상황이 최악의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병력으로 재 봉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1598년 11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석주관에서 있었던 전투는 남원성 전투에 묻히는 등 다른 싸움에 비해 규모가 작았기에 朝廷의 관심

6) 정조 때 道內士林이 監營이나 중앙에 올린 대부분의 글에는 제2차 석주관 병력을 '8백 의병'이라 했는가 하면, 순조 때의 것에는 '5백 의병'이라 하였다.(趙後來, 『丁酉再亂과 石柱關 義兵抗爭』, 『求禮石柱關七義士』, 목포대학박물관, 1990, 132쪽 제 인용.)

7) 『華嚴寺僧丁酉亂日記』, 『求禮石柱關七義士』, 목포대학박물관, 1990, 자료4.

8) 『丁酉再亂과 石柱關 義兵抗爭』, 『求禮石柱關七義士』, 목포대학박물관, 1990, 129쪽.

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02년 純祖 임금 때 와서야 1592년 왜란 당시 구례현감이었고,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했던 이원춘을 藍田祠⁹⁾에 배향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용하평 마을로 남전사가 옮겨져 祠宇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1804년 순조 4년에는 왕득인과 왕의성 父子에게 나라에서 '지평'과 '좌승지'의 증직 교지를 각각 내렸으며, 1805년에는 5義士인 이정익, 한호성, 양응록, 고정철, 오종에게도 각각 관직을 추증하였다. 그리고 1812년에는 왕득인 父子에 대한 旌闈까지 내려지게 되었다. 또 구례 사람들의 증론에 따라 1814년에는 구례현감 이원춘을 비롯한 여덟 분과 본래 남전사의 주인공이었던 왕지익까지 포함하여 아홉 분을 배향하게 되었으며, 이름도 忠孝祠로 바뀌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충효사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 해 가을 칠의사의 후손들에 의해 칠의사의 위패를 지금의 석주관에 埋安하였다. 1900년 경자년 가을에 이르러 칠의사의 후손들과 梅泉 黃致을 중심으로 칠의사를 추모하는 七義士閣을 짓게 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석주관에 위패조차 놓아둘 수 없었지만¹⁰⁾ 해방이 되고 1948년에 후손들과 관인들이 七義閣과 永慕亭을 증축하여 칠의사를 기념하였다. 그리고 1962년에 와서야 석주관칠의사단을 건립하였으며, 1963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6호로 지정되었다.

3. 石柱關七義士에 대한 追慕 詩文

3.1 칠의사 시편의 시문 분류와 특징

- 9) 藍田祠는 본래 구례 평의면 지천리 남계동에 있었으며, 효자 남계 王之翼(1683~1727)을 배향하기 위해 그 손자 王處中의 발의로 1876년 세워졌다.
10) 석주관의 칠의사 사적은 日帝때 수난을 당하였다. 1942년에 칠의사의 위패들이 각 후손들의 선산으로 옮겨지고, 해방 후 현재의 자리에 復遷하였다가 1948년 구례군수 劉守鉉의 주선으로 道費와 郡民의 의연금으로 규모를 일신하게 되었다.(『求禮 石柱關七義士』, 목포대학박물관, 1990, 160쪽 재인용.)

석주관 제명각 시편에 새겨진 추모시의 형식은 조사 결과 모두 七言律詩였다. 아무래도 絶句는 감정을 표현하기에 너무 詩句가 짧았을 것이고, 시가 장황하게 길어도 시편에 새기는 것이 부담스러워 古詩가 아닌 칠언 율시로 옮기고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추모 시이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모두가 왜란 당시 칠의사의 忠節을 찬양하고 석주관의 史蹟을 읊은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칠의사 후손들이 쓴 시문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이들의 특징을 분석해 본다.

3.1.1 칠의사 후손들이 쓴 시문 분류

칠의사 후손들이 쓴 시문을 편의상 가문별, 성씨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시문을 많이 쓴 칠의사의 후손은 왕득인 후손이 가장 많았고, 이정익(1571~1597), 한호성, 양응록, 고정철, 오종의 후손 순서였다. 이 내용을 다시 세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득인과 왕의성의 후손인 開城 王氏들의 詩文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藍田王公 七代孫 進士인 鴻峰 王學曾, 藍田王公 七代孫 進士 王學龍, 九世孫 老石 王師春, 九世孫 石藍 王師贊, 九世孫 素琴 王師天, 九世孫 小川 王師瓚, 十一代孫 王在沼 등 모두 7명의 시가 새겨져 있다. 이것은 川社 王錫輔¹¹⁾의 차제인 王氏三之¹²⁾가 시에 뛰어난 자질도 있거니와 王氏 家門이 번창하여 구례사회를 이끌어 왔던 대표 지식인층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기도 하다. 七代孫 2명은 進士였고, 나머지는 王在沼(1871~1944)를 제외한 4명이 九世孫이다.

둘째로는 칠의사의 한 분인 이정익의 후손들이다. 李鐘賢, 竹史 李瑛在, 斗溪 李閔在, 後孫 李鐘旭, 漢州 李亮來의 시문과 石泉 李濟寬, 小源 李永奎, 小醉 李秦奎, 李承浩 등 9명이 추모시를 썼다. 단일 성씨로 가장 많은

11) 王錫輔(1816~1868) : 字는 允國, 號 川社. 純祖 丙子生. 性이 沈溫正直하고 事親之孝러라. 金滄江澤榮이 合編四父子詩爲開城家稿 하니 世이 愛讀하다.(『續修求禮誌』, 63쪽.)

12) 川社 王錫輔의 3자제를 말함. 鳳洲 王師瓚(1836~1895)의 字는 任之, 素琴 王師天(1842~1909)은 則之, 小川 王師瓚(1846~1912)은 贊之였다.

추모 시문을 새겼지만, 이것은 정유제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구례현감 이원춘을 이정익과 같은 성씨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知郡 李敦行, 知郡 李載憲은 구례군수였기에 제외하였다.

셋째로는 한호성의 후손들로 桂村韓公 八世孫 韓白裕, 九世孫 韓用準, 九世孫 韓秉履, 十一世孫 野鶴 韓濬教 등 4명의 시가 새겨져 있다.

넷째, 고정철의 후손 忍醉 高錫龜, 櫟齋 高光泰의 시가 있고, 다섯째, 양응록의 후손 櫟村梁公 十世孫 梁基鎬의 시가 있고, 여섯째, 오종의 후손인 直齋吳公 九世孫 吳相俊의 시가 새겨져 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철의사 이름	시판에 새겨진 후손 이름	인원 (24명)	비고
왕득인	7세손 : 왕학중, 왕학룡 9세손 : 왕사춘, 왕사빈, 왕사천, 왕사관 11세손 : 왕재소	7명	진사 2명
이정익 현감이원춘	이종현, 이영재, 이윤재, 이종유, 이양래, 이계관, 이영규, 이진규, 이승호	9명	군수 이든행, 이제현 제외
한호성	8세손 : 한백유 9세손 : 한용준, 한병이 11세손 : 한영교	4명	
고정철	고석구, 고광태	2명	
양응록	양기호	1명	
오종	오상준	1명	

3.1.2. 후손이 아닌 경우의 시의 특징

직접 철의사와 같은 성씨가 아니면서 추모시를 쓴 시인은 모두 25명으로 다음과 같다. “梅泉 黃玆, 小嶼 權亨圭, 昇平 朴海友, 二山 柳濟陽, 南史 洪樵, 心石 宋秉珣, 正言 宋祥淳, 郡守 南宮杓, 荷田 金性權, 郡守 劉守

150 古詩歌研究 第27輯

鉉, 南坡 成憲永, 勿溪 鄭載圭, 南洲 趙性宙, 兼山 白樂倫, 惺齋 鄭卿錫, 海鶴 李沂, 酉堂 尹鐘均, 鶴亭 朴東鎬, 愚溪 尹榮燮, 陽谷 林秉宇, 蘭溪 朴燦求, 湖西過客, 林顯周, 知郡 李敦行, 知郡 李載憲”였다.

이 가운데 1911년 滄江 金澤榮이 상해에서 발행한 『梅泉集』의 시부분에 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梅泉 知友들의 시는 모두 11수였다. 매천은 1900년 46세 되던 庚子年에 「歲暮懷人諸作」의 五言古詩 20수를 썼다. 평생 잊지 못할 교우 20명을 그리워하며 쓴 시로, 모두 마음의 교감을 갖고 사귀었던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 이 시인들 가운데 석주관철의사의 추모시를 써서 시판에 새긴 시인은 洪南史樵, 白兼山樂倫, 成南坡憲永, 李海鶴沂, 柳二山濟陽, 王小川師瓚, 尹酉堂鐘均 등 7명이었다. 이들의 추모시에다 素琴 王師天, 惺齋 鄭卿錫, 石樵 朴海友, 湖西過客 등 4명이 더해져 매천의 주변 인물 11명이 철의사의 추모시를 쓴 것이다.

3.2 後孫들의 詩

3.2.1 籃田王公 七代孫 王學曾의 시

斜陽石柱下 지는 해 석주성 아래로 비껴있는데
淚和龍蛇秋 왜란의 눈물 속에 몇 해 이런가.
兩世倫綱擗 두 세대 임금님께 삼강오륜 추어올려
諸賢義蹟收 여러 어진 이의 의로운 사적 거두었네.
參差山壘屹 들쭉날쭉한 산 성가퀴는 솟아있고
寂寞血川流 적막하게 핏빛 냇가 흐르고 있네.
感觸鳴吾劍 강개함을 느껴 우리들의 칼이 울고
南天雲欲愁 남쪽 하늘의 구름도 슬퍼하고자 하네.

시판에 「石柱感古」라는 제목으로 새겨져 있는 이 시는 籃田王公 七代孫 鴻峰 왕학중의 작품이다. 進士였던 왕학중은 철의사의 대표 인물 왕득인과 왕의성 父子의 후손이었다. 2행의 龍蛇는 왜란이 일어난 1592년 壬

辰年과 다음해 1593년 癸巳年을 말하며, 보통 왜란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기도 한다. 두 임금님께 석주관 칠의사의 업적을 보고하고 알려져 관직을 각각 추증 받고, 의로운 사적을 거두었다고 읊었다. 두 임금은 아마도 정조 임금과 순조 임금일 것이다. 경연과 미련의 내용은 정유재란 당시 피내를 이루었던 석주관 전투의 현장을 보고 있는 듯 강개함이 있다.

역시 7세손이며 진사였던 而見 王學龍(1751~1814)이 쓴 추모시도 위의 시와 함께 같은 시판에 새겨져 있다. 개성왕씨들이 처음 구례지방에 들어와 살던 곳이 지천리 藍田마을로, 藍田에서 좋은 구슬이 난다는 '藍田生玉'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왕학중 자신도 왕득인, 왕의성의 義氣를 이어받아 임진년에 賊變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進士였던 中山 李之漢과 연대하여 倡義하고자 격문을 돌렸다. 하지만 적이 평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두었던, 의기가 있었던 인물이었다.¹³⁾

3.2.2 藍田王公 九世孫 小川 王師瓚의 시

人生有限足悲哀 인생살이 한이 있으면 슬프기 마련이지만
石柱城空杖策廻 석주성을 쓸쓸히 지팡이 짚고 돌아보았네.
海窟長鯨顧國至 왜놈들 도적이 나라를 망하게 함에 이르러
將軍匹馬禦戎來 장군은 필마로 오랑캐를 막으러 왔네.
秋深劍氣騰寒渚 가을 깊어 검광이 찬 물가에 피어오르고
夜久虹光起古臺 밤 깊어 무지갯빛 옛 돈대에서 일어나네.
浦女不知傷往事 포구의 아낙네 아픈 지난 사실 모른 채
一帘明月護梅盃 주막집 밝은 달 술잔에 아득히 전해오네.

傾國의 시기에 이르러 필마로 오랑캐를 막았다 하며, 칠의사의 최초 인물이었던 왕득인의 업적을 높이 추승하였다. 석주관 전투가 있는 지 3백여 년이 지난 후라 포구에 있는 주막집 아낙네가 이 전투의 슬픈 과거를 알 리 없다. 하지만 석주관 전투는 잊혀 지지 않고 세인들의 입에서 입으

13) 『求禮郡誌』(上), 구례군지원위원회, 2005, 899쪽.

152 古詩歌研究 第27輯

로 아득히 전해오고 있음을 읊었다.

구례의 개성왕씨 가문은 雲樵 王粹煥에 의해 『開城家稿』의 문집을 낼 정도로 문장이 뛰어 났다. 특히 이 추모시를 쓴 소천 왕사찬은 영남의 남파 성혜영과 호남의 석정 이정직과 함께 매천 황현이 인정한 시인이었다. 매천은 소천과 많은 시문을 주고받았으며, 1895년에는 문학 논쟁을 하며 中國詩를 溯考하며 『和小川論詩六絶』을 쓰기도 하였다.¹⁴⁾

이 밖에 석주관에는 十一世孫 藍山 王在沼(1871~1944)의 시문도 새겨져 있다. 왕재소는 매천의 제자였으며, 1908년 매천이 만든 私立壺陽學校 3대校長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1911년 『매천집』을 발간할 때 연조자였으며, 훗날 매천의 아우 계방 황원이 1944년 월곡저수지에 빠져 순국하였을 때 <和石田自挽>, <挽石田四絶>의 弔輓詩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었다. 석주관 시판에 새겨지지는 않았지만 석주관과 관련하여 川社 王錫輔의 <石柱道中>¹⁵⁾이라는 시도 있다.

개성왕씨 가문은 칠의사인 왕득인, 왕의성父子로부터 이어져오는 抗日意識과 민족의식이 뚜렷하였다. 왕사각의 아들이 雲樵 王粹煥과 玉川 王京煥이었는데, 왕경환의 아들이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의 주역 王在이이었다.

3.2.3 桂村韓公 八世孫 韓白裕의 시¹⁶⁾

七義壇荒賦八哀 칠의단은 거칠어 있는데 팔에서 읊으며
江山搖落我重廻 강산이 흔들려 떨어짐을 거듭 돌며 보았네.
魚鳴水欄悲風起 수책에 있는 물고기 울어 슬픈 바람 일고
鸞翻沙場冷月來 반딧불이 모래밭에 끊겨 차가운 달 떠오네.

14) 『梅泉集』, 청구문화사, 1979, 85쪽.

이병기·김영봉역, 『譯註梅泉黃瑛詩集』(上卷), 보고사, 2007, 275~282쪽.

15) “石柱道中秋光晚, 石柱渡頭起波濤, 平蕪迢迢日欲落, 老樹搖搖風自號, 人去長程幾時歇, 雁飛南國一行高, 壬辰往事那堪問, 空撫腰間七尺刀.”(王粹煥, 『開城家稿』, 상해, 1913, 44쪽.)

16) 문승이, 『石柱關七義士詩文』, 구례향토문화연구회, 2008, 16~17쪽.

應是忠魂依北斗 응당 충혼이 북두칠성에 의지하리니
 如今皓首上西臺 지금 흰머리 늙은이가 서대에 오르네.
 千秋恐復名湮沒 천추에 명성이 다시 인몰될까 두려워
 爲洗碑苔勒酒杯 비석에 낀 이끼 씻으며 술잔을 다스리네.

칠의사의 한 사람이었던 한호성(?~1597)의 후손 한백유가 석주관전투를 회상하며 잔을 올리면서 읊었던 시이다. 기린에서 八哀詩를 끌어들이시상을 일으키고 있다. 팔에서는 원래 杜甫가 지은 시로, 두보는 이 시의 서문에서 “당시 도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王公 思禮와 李公 光弼부터 노래하기 시작해 옛 사람을 그리워하고 어진 이를 생각하면서 張相國 九齡에 이르러 시를 마쳤다.”라고 썼다. 매천 황현도 이런 의미에서 을사조약이후 순절한 閔泳煥 등을 추모하며 팔애시를 짓기도 했다.¹⁷⁾ 시인은 이 시의 경구에서 침노한 도적떼를 막고 국난의 위기를 극복한 칠의사의 충혼을 읊었다. 석주관 전투가 있는 지 수백 년이 지난 후라 백발 된 늙은이가 석주관 사적지를 오르며 칠의사의 업적이 인몰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걱정과 8세손의 작품인 것을 감안해 보면 아마도 이 시는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칠의사의 위패를 지금의 석주관에 埋安하면서 읊은 시로 생각되어지는 시이기도 하다.

3.2.4 樸齊 高光泰의 시

江上忠壇古塞陽 강가 충의로운 제단은 옛 성채 양달에 있고
 登臨此日感懷長 올라보는 이날에 감회가 깊어라.
 魚龍鳴咽風威冷 어룡이 오열하고 바람의 위력이 차가운데
 猿鶴徘徊月色涼 원숭이 학이 배회하고 달빛이 차갑네.
 報國壯心如鐵石 보국하려는 강한 마음은 철석과도 같았고
 沈沙折戟幾星霜 모래 속에 묻힌 부러진 창 몇 성상 지냈는가.
 書生亦有崢嶸膽 서생에게도 역시 쟁영한 충성심이 있어서
 大讀豐碑醉一觴 풍비를 크게 읽으며 제주 한 잔 올려 드리네.

17) 김영봉, 『역주황매천시집(후집)』, 보고사, 2010, 470쪽.

7의사의 한 사람인 고정철의 후손 고광태의 작품이다. 이 시의 제목은 「七義士六週甲追慕」라고 되어 있어 칠의사 순절 6주갑을 추모하며 읊은 시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360년이 지난 해는 1957년이다. 보국하려는 충절의 의지로 나라를 지켜낸 7의사를 추앙하면서 시인 자신도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충성스런 마음으로 술잔을 올리고 있다. 1956년 칠의사 원중회를 중심으로 칠의각 영모제를 신축한 후이기에 시인은 후손으로서 감회가 깊었을 것이다.

이 밖에 칠의사의 한분인 남원양씨 양응록(?~1597)의 후손 樸村梁公 十世孫 梁基鎬의 시에는 “그 해 씩씩하게 적병을 무찌르던 계책과/ 남겨진 사적 쓸쓸히 진하여 둔대의 역사를 읽네// 청컨대 산 높고 험함을 석주관에 머물러서 보라/ 지금까지 시골 늙은이들 세시에 잔을 올리네”¹⁸⁾라고 써서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읊었다. 그리고 칠의사의 한 사람이었던 해주오씨 오중(?~1597)의 후손 直齋吳公 九世孫 相俊의 시 경구와 미구에는 “의로운 군사 힘 모아 나라 위해 죽기로 싸웠으니/ 마음 상한 여행객도 힘차게 석주대에 오르네// 칠의사 후손들과 함께 추모하며/ 해마다 봄가을로 제향하며 술 한 잔 올리네”¹⁹⁾라고 써서 7의사의 충의로운 마음을 생각하며, 봄가을로 추모 제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또 後生 李承浩의 시의 경구와 미구에도 “칠월 은근한 달빛 돌 섬돌 위에 올라보니/ 영혼이 분명하지 않은 채 누대로 강림하시네// 의로운 기운 당당하였으며 항상 다감하여/ 해마다 봄가을로 축배의 잔을 올려드리네”²⁰⁾라고 읊었다. 충의로운 기운이 당당했다 하며, 강림한 7의사 영령에게 역시 술잔을 올리고 있는 시이다. 특히 이 시의 시판에는 ‘四二八七年 甲午 菊秋’라고 새겨져 있어 서기 1954년 갑오년 가을에 제사를 올린 시는 시로 확인이 되고 있다.

18) 當年已壯擊兵策, 遺事空傳讀史臺. 請看嵒嶼留石柱, 至今野老歲時杯.

19) 戮力義師爭死國, 傷心行旅淚登臺. 七義遺裔同追慕, 每歲春秋奠一杯.

20) 涼月懸巖昇石砌, 吳魂的歷降樓臺. 堂堂義氣常多感, 歲歲春秋進祝盃.

3.3 後孫이 아닌 경우의 詩

총 25명이 쓴 25수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5명의 시를 발췌하여 번역해보고, 이들 추모시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3.3.1 梅泉 黃玟(1855~1910)의 시

왕득인은 칠의사의 핵심 인물로 매천의 스승이었던 왕석보, 왕사각 선생의 조상이었다. 광양 태생의 매천은 11세 이후로 어려서부터 왕씨가문에서 공부 했기에, 성장하면서 왜란 당시의 칠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연히 國家觀과 愛國心을 키워 갔을 것이다. 평생 동안 시를 읊고 살았던 매천이 義憤을 가지고 석주관칠의사에 대한 시문을 쓴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의 시문에 유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들에 대한 애국시를 많이 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매천은 석주관 전투보다 앞서 있었던 '남원 정유재란 때의 전장을 추모하며'의 「南原弔丁酉戰場」²¹⁾이라는 다음과 같은 오언고시 시문을 남기기도 했다.

古城平如掌 옛 성은 손바닥처럼 평평하게 있고
 人烟蕪青草 밥 짓는 연기는 푸른 초원에 넓게 있네.
 哀哀萬人塚 슬프고 슬프도다, 만인의 무덤이여
 茫茫戰骨橫 아득히 전쟁터의 유골을 위로하네.
 問渠何年代 어찌하여 어느 연대라고 묻겠는가
 龍蛇劫盡掃 용사년에 모두 다 불타 버렸네.
 倉皇用遺材 어찌할 겨를 없이 인재를 잘못 써서
 威算宴顛倒 경계하고 씬해 보니 술자리 전도되었네.
 楊元本北將 양원은 본래 북쪽 명나라 장수였지만
 不閑禦海盜 바다의 도적을 막지 못했네.
 (中略)
 絶戴元統制 애절하게도 통제사 원균을 탄식하노니

21) 『매천전집』(권3), 전주대학교남학연구소, 1984년, 251쪽.
 김영봉, 『역주황매천(속집)』, 보고사, 2010년, 514쪽.

如何棄間島 어찌하여 섬들을 포기한단 말인가.

시문에 나오는 楊元은 정유재란 때 남원 성을 지키던 명나라 원병 대장으로 남원성 전투에서 패하여 탈출하였고, 결국 남원성이 애절하게도 함락되고 말았다. 매천은 이 시에서 인재를 잘못 썼다고 읊고 있으며, 7월 15일 漆川海戰에서 죽은 元均(1540~1597)을 탄식하였다.

매천은 석주관 사적지와 관련하여 1895년 매천의 나이 41세 때 「石柱關弔古」²²⁾(오언고시)를 썼고, 「石柱七義閣」²³⁾(칠율 1수, 연대미상)을 읊었다. 1901년 辛丑年에 매천은 석주칠의각을 조성하면서 「七義閣上樓文」, 「石柱七義閣二首」²⁴⁾(칠율 2수)와 칠의각의 「柱聯」을 썼다. 이 글들을 차례로 본다.

매천이 쓴, 석주관 제명각 시판에 새겨져 있는 「칠의각상량문」²⁵⁾은 단기 4234년(서기 1901년) 신축년 三月 下濼에 써진 글이다. 지면상 다 옮기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옮겼다.

伏以 엎드려 생각하건대
 十室必有忠 열 집에 반드시 충신이 있고
 樹風聲於百世 나무엔 백대에 들러오는 명성이 있다.
 九原如可作 하늘에서 만들어져
 降英靈於一堂 한 자리 회당에 영령이 강림 하시었다.
 (中略)
 肆當蝦夷再鑿之辰 왜놈들 방자하고 다시 미친게 날릴 때
 乃有鳳城諸義之舉 구례에서 여러 의인들의 거사가 있었다.

22) 『매천전집』(권3), 전주대학교남학연구소, 1984년, 93쪽.
 이병기·김영봉역, 『譯註梅泉黃玟詩集』(上卷), 보고사, 2007, 307쪽.

23) 『매천전집』(권3), 전주대학교남학연구소, 1984년, 274쪽.
 김영봉, 『역주황매천(속집)』, 보고사, 2010년, 586쪽.

24) 『梅泉集』, 청구문화사, 1979, 250~251쪽.
 이병기·김영봉역, 『譯註梅泉黃玟詩集』(中卷), 보고사, 2007, 482~483쪽.

25) 석주관 시판에 새겨진 上樓文과 『續修求禮誌』, 『梅泉全集』에 있는 상량문의 글자가 각각 조금씩 다르다. 본고는 석주관 시판에 있는 상량문을 중심으로 옮겨 번역하였다.

呼應鄉里之壯士 향리의 장사들이 호응하여
 作者七人 일으킨 자 일곱이고
 招募繼繼之殘餘 화염사의 남은 중 끌어 모아도
 衆未一旅 일어도 되지 않는다.
 (中略)
 驚湯火而如嘯 끓는 불 속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灑血憑城 성에 의지 해 피 뿌리고
 指穹壤而無羞 하늘과 땅 가리고 부끄러움 없이
 接踵殉國 순국하는 자 잇따른다.
 (中略)
 吁倉卒埋主之區 아, 창졸간에 신주 파묻는 지역 되었고
 卽當日立旌之所 즉시 당일로 시체 파묻어 세울 땅 되었도다.
 (中略)
 數仞崔嵬 몇 길 높은 낭떠러지에
 輝呈纒墨之巧 먹줄의 기교가 다 나타난다.
 自作都料匠 스스로 도편수 되어 말하길
 威口與神爲謀 귀신과 도모한다 하고
 如赴公家徭 공가의 부역 나가는 것처럼
 便是倍日而就 날짜를 배나 걸려 이룬다.
 (中略)
 炳靈江漢 나라 안에 밝은 영기(靈氣)로
 輩出忠信之民 충성과 신의 있는 백성들 많이 낳게 하소서.

중략을 많이 했지만 長文으로 歷史性和 故事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上 標文은 집을 짓기 시작한 뒤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려놓 으며, 상량식을 할 때 천지신명에게 고하면서 상량을 축복하는 글이다. 보통 그 건축물이 잘 보존 되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복을 기원하는 글이 기에 상량 의식은 중요하다. 매천이 석주철의각을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상량문을 썼다는 것은 철의각을 만들었던 주축 인물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매천은 위의 상량문에서 석주관의 역사와 철의각의 신축과정을 기록하였다. 결론에서 “...엇드려 바라옵건대 상량한 뒤에 성주님께 비옵기로서

니 제기에 향기 피우소서. 충성과 신의 있는 백성 무리지어 나오소서”라고 기원하며, 철의사와 그 영령들을 추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철의각을落成하면서 매천은 또「石柱七義閣二首」를 읊었다. 시판에 새겨져 있는 제 2수를 본다.

空峽禽蟲夜月哀 텅 빈 골짜기 새 벌레소리 나는 달밤 슬픈데
 高江百折抱增迴 깊은 강물 굽이굽이 단을 안고 도는구나.
 飄零野史挑燈看 떠도는 야사를 등불 뜬우며 보노라니
 彷彿靈風入夢來 신령스런 바람이 꿈속에 든 듯 불어오네.
 亂蘆沙青埋劍戟 물가에 쌓인 모래자갈 더미에 잠갈 묻혔고
 孱孫頭白起樓臺 잔약한 자손들이 백발 되어 누대를 세웠네.
 登臨大有悲秋意 철의각에 올라보니 가을 정취 애달프고
 今古蕭條酒一盃 고금의 역사 되새기며 슬슬히 잔을 드네.

위의 「石柱七義閣」제2수는 (灰)자 평성 一韻到底韻으로 되어 있다. 한 시 3대 작법인 平仄과 粘法, 脚韻이 이상이 없는 완벽한 칠언율시로 되어 있다. 매천은 앞서 소개한 상량문을 쓰고 나서 이 시를 읊었을 것이다. 왜란 당시의 석주관의 역사를 살펴 보면서 삶과 죽음의 갈래에서 왜적들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던 철의사를 弔喪하면서 사적지를 읊었다. 다음으로 매천이 쓴 제명각의 柱聯을 본다.

魂兮來江水湛湛 혼이여, 오는 듯 강물이 답답하고
 歌以侑白石齒齒 노래로 권하매 백석만 벌려 썼네.
 短壘荒碑山雨綠 옛 진터 거진 비석엔 빛비 푸르고
 崩沙斷戟土花腥 무너진 모래 창 끊겨 토화가 비리더라.

백경 김무규²⁶⁾가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았다. 석주관 철의각에

26) 金茂圭(1908-1994) : 구례출신으로 호는 白耕. 1923년 매천의 손녀와 결혼, 금 단위를 조직하여 항일활동을 하였다. 1934년 명륜전문학교(현 성균관대)를 수학하고, 1937년 와세다대학 중문과를 통신으로 마쳤다. 민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구례중학교를 설립, 교장으로 후학지도에 힘쓰기도 했다. 단소와 거문고를 잘했으

들어서면 순결한 영혼들에 대해 엄숙한 분위기가 압도되어지는 문장이다.

매천은 석주관철의사에 대해 이처럼 칠의각 상당문과 추모시 3편 4수의 칠언율시와 주련을 썼다. 心石 宋秉珦²⁷⁾이 현관을 썼으며, 매천이 지은 주련은 丁學教²⁸⁾(1832~1914)가 썼다.²⁹⁾ 1906년 勉庵 崔益鉉도 석주관을 지나가다가「七義閣記」³⁰⁾를 짓기도 하였는데, 이 글 또한 제명각에 새겨져 있다. 면암이 석주관에 왔을 때 매천은 면암을 뵈기도 했으며, 또 그해 순창 의병 전투에서 면암이 패해 왜놈들에게 끌려가 대마도에서 아사순국 했을 때 매천은「哭勉菴先生」 칠을 8수의 시를 써서 통곡하고 망해가는 서글픈 국가의 현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³¹⁾

3.3.2 南坡 成憲永(1845~1912)의 시

河沈山崩壯士哀 강 제방 끊어지고 산 무너져 장사들 슬픈데
 風塵一夢首重廻 풍진 세상 한 꿈에 머리를 거듭 돌려보네.
 石關猶傍楓林在 석주관은 아직도 단풍 숲 옆으로 있고
 鐵騎如從江水來 철갑을 입은 기병이 강물 따라 오는 듯하네.
 歲積遺孳生古壁 세월 쌓여 남겨진 도깨비불 옛 벽에 생기고
 夜深棲鶴上寒臺 밤 깊어 깃들인 학이 차가운 누대로 오르네.
 高秋路出空壇下 높은 가을 하늘 빈 제단 아래로 길이 나옴
 爲蕪蘼花侑薄盃 부들 꽃 울리고 미친한 잔 드러 배향 하네.

며, 단소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求禮郡誌')(F), 구례군지편찬위원회, 2005, 35쪽.)

27) 宋秉珦(1839~1912) : 호는 心石, 자는 東玉. 경술국치 이후로 음독 자결하였다. 석주관철의사에 대한 시문이 있다.

28) 丁學教(1832~1914) : 丁學教라고도 한다. 자는 化景 · 花鏡. 호는 香壽 · 夢人 · 夢中夢人. 閔泳琪 · 李星應 · 尹用求 등과 서화로써 교류하였다. 篆 · 隸 · 行 · 草에 모두 능했으며, 그의 작품으로는 墨竹圖, 梅花圖, 蘭竹怪石圖가 있으며 글씨로는 光化門扁額 등이 있다.

29) '求禮郡誌'(上), 구례군지편찬위원회, 2005, 689쪽.

30) '국역 勉庵集II', 민족문화추진회, 1984, 285~286쪽.

문승이, 「石柱關七義士詩文」, 구례향토문화연구회, 2008년, 112쪽.

31) 「매천전집」(권3), 전주대학교학연연구소, 1984년, 228쪽.

김영봉, 「역주황매천(속집)」, 보고사, 2010년, 435~438쪽.

왜란 당시의 한 많은 석주관 전투를 회고하며 영령에게 술잔을 올리고 있는 시이다. 성해영은 河東 鎮巖의 향반 출신으로 자는 彩梧라 했으며, 秋琴 姜瓌(1820~1884)의 시제자로 추금의 '六橋詩社'에 참여하였다. 32세의 남파가 22세의 매천을 광양의 석현정사로 찾아가 만나면서 시문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를 맺었다. 매천은 이 남파를 통해 秋琴 姜瓌(1820~1884)를 알게 되었다. 남파는 운조루의 二山 柳濟陽(1846~1922) 등과도 각별한 교제가 있었던 인물이었다.

매천이 남파에게 쓴 「與成南坡憲永書」라는 다음 글은 칠의각 축조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칠의사의 전경터였던 석주관은 형이 옛적에 지났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후손들이 제단을 설치하고 제각을 세워 봄 가을에 향화를 받드는 곳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고을 선비들을 맞이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글을 지어 문미 사이에 걸어 영구히 전할 것을 도모하기에 저는 이산소천과 함께 모두 모임에 갔었습니다. 다만 이 일은 형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고, 또 판에 새겨야 할 글씨는 보통 솜씨로 할 바가 아니므로 여러 의견이 한결같아 드디어 이 소년을 보내니, 그의 말을 들으면 그 곡절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형은 이러한 일을 본래 좋아하시니, 바라건대 좋은 글씨로 휘둘러 써서 그옥한 충의의 빛을 영구히 강산에 비쳐 빛나게 해 주십시오."³²⁾

上略되었지만 남파에게 매천의 이 편지 글을 가지고 간 '소년'은 매천의 스승 왕사각의 둘째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다. 二山 柳濟陽과 小川 王師瓚도 칠의각 축조공사에 참여하고 있다하며, 칠의각 시판의 글을 남파에게 써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글이다. 이런 연유로 칠의사에 대한 남파의 추모시가 써지게 되었으며, 시판에 새겨져 제명각 문미 사이에 걸리게 된 것이다. 매천이 칠의각을 조성하는 공사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

32) “…石柱之爲七義戰地, 兄所舊經處也. 今其諸家遺孫, 設壇建閣, 以爲春秋香火之所, 仍遣一鄉土友, 設酌拈韻, 揭之欄間, 擬圖永遠, 弟與二山小川, 皆社會而第念此事, 不可不關於兄, 且刻板之筆, 非庸手所了, 尙識齊發, 遂伴此少年, 憑其口報, 可悉其曲折矣, 兄於此等事, 素有嗜癖, 望須極筆揮灑, 使忠義幽光, 永永映發湖山之濱也…”

고 있는 좋은 史料가 되고 있다.

3.3.3 心石 宋秉璿(1839~1912)의 시

我有詞招七義哀 나에게 초대한 글 있으니 칠의사 애처로워
血川鳴咽欲停翹 피어린 냇가 울먹이며 머물러 돌고자 하네.
偏生艱感寒雲逗 유달리 감회가 생겨나 찬 구름 머뭇거리고
爭照群忠白日來 다투어 못 충신들 비추며 밝은 해 떠오르네.
石柱劫灰餘舊壘 석주성은 병선으로 재 되어 옛 성채 남아있고
藍田沮足但空壘 남전에 제기 그릇 있으며 빈 누대뿐이로다.
英靈陟降應斯在 영령들 오르내리며 응당 잠시 개설 것이니
可作長江俯一盃 긴 강가에서 가히 잔 잡아 권할 만하여라.

왜란 당시 석주관 골짜기가 싸우다 전사한 의병들의 피로 물들어 피어린 냇가로 변한 사실을 읊었다. 그 당시 구례현감으로 전사한 이원춘을 배향한 藍田祠의 역사를 비롯하여 칠의사를 비롯한 못 충신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있다.

송병순은 충남 회덕출신으로 宋時烈的 9세손이었다. 을사 보호조약 폐순절한 淵齋 宋秉璿(1836~1905)의 아우로, 송병순 역시 경술국치 이후 망국의 슬픔을 달래다 1912년 음독 자결한 인물로 유명하다. 영동에 있는 文忠祠에 배향되었으며, 다시 대전 龍洞書院으로 옮겨져 배향되고 있다. 매절은 송병선이 순절했을 때 「聞宋淵齋先生殉義之報，私慟于野」라는 제목으로 칠을 3수를 써서 조상하였다.³³⁾

3.3.4 警堂 林顯周(1858~1934)의 시

일제시대 1921년 辛酉 季冬에 지은 시로, 제명각 원운에는 이 시의 긴 부제까지 새겨져 있다. 임현주가 석주관칠의사의 추모시를 읊은 연유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 전문을 읊기고 번역해 보았다.

33) 이병가김영봉, 『譯註梅泉黃琰詩集』(下卷), 보고사, 2007년, 277쪽.

이해 세모 초에 장차 연곡 산중으로 돌아가려함에, 두 사람이 나와 함께 석주관 아래를 지나가다가 돌아보며 물었다. “여기에 칠의사 계공들의 유허지가 있는데, 가서 보지 않겠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그 말이 장하도다.”라고 따랐다.

드디어 함께 가서 산에 올라가서 보니 성은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는 사이에 시든 풀이 있을 뿐이었다. 그로 인해 서로 풀을 깔고 묘에 참배하니, 묘가 모두 8기로 봉분이 축조된 지 오래되었고, 창태가 섬뜩에 가득하였다. 내가 심히 정색을 하고서 슬피 두 사람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슬프도다, 옛날의 충신 의사가 비록 이름이 후세에 한번 드리워 밝아졌다 해도, 지하에 적막함이 이와 같을 것인가? 하물며 변변치 않은 인생이 구차하게 죽어 모아래 한 삼으로, 청산과 풀이 같이 썩고, 벌레처럼 천하게 되어 비웃음을 받지 않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을진대 세상에 특이함 없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로써 어찌하여 죽음에서 다들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만약 충신 의사가 나라를 위하여 충절을 세운 자는 천년을 지내고 백세에 지나도록 죽지 아니한 자로다.”라고 하고, 이어서 시로 말하였다.³⁴⁾

當死於死不哀 죽음에 임해 죽는 것은 죽어서도 슬프지 않고
一遺此地更難廻 한번 이 땅이 어긋나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라.
長江失勢水東去 긴 강물 세력 잃고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赤日如心天上來 붉은 태양은 마음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도다.
故老相傳修野史 늙어 서로 전하며 야사에서나 엮어 만들고
先王無愧是泉臺 선왕에게 부끄러움 없는 것은 저승길일 뿐.
餘生未料逢休運 남은 인생 헤아리지 못하고 온 다해 맞으니
白首登亭淚滿盃 늙은이 정자에 올라 울먹이며 부들 잔 드네.

경당 임현주는 남원출생으로,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의병을 모집하여 면암 최익현의 휘하로 들어가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포로

34) “是歲歲暮之初，將歸于燕谷山中，二人從余過石柱之下，顧予而問，曰此地有七義士諸公遺墟，盍往觀乎。予壯其言而許之。遂聯袂而登山但崩城，敗壁之間，衰草而已矣。因相與藉草而拜鞠鞠，凡八位而封築歲久蒼苔滿砌。予甚愀然而悲顧謂二人，曰噫，古之忠臣義士，雖垂名後世一般，地下寂寞如此，況碌碌人生，苟死床下一鋪，青山與草同腐，不為螻蟻之所笑者幾有乎。如此其不生於世無異，何是以與論於死哉。予故曰若忠臣義士爲國立節者，閱千秋巨百世而不死者也之爾，繼之以詩曰”

가 되었다. 전주 진위대로 호송되었고, 서울 일본군 사령부로 압송되어 태형 100대에 처해졌다. 모친 고문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강물에 던져졌다. 고기 잡는 노인에게 발견되어 구출되어진 후, 겨우 살아남게 되었다. 반신불구의 몸으로 일본군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구례 문척면 화정리에 1918년 五鳳精舍를 세우고 교육에 전념했던 愛國志士였다. 경당이 죽은 후 제자들은 경당의 업적을 비에 새기고, 해마다 오봉정사에서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鳳山祠라는 사당이 따로 지어져 있으며, 묘소는 대전 현충원에 있다.

석주관 자락이 보이는 곳에 살았던 경당이 옛 석주관 전적지를 지나가다 읍을 시이다. 경당은 목숨 걸고 의병활동을 하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기에 누구보다 이 석주관에서 있었던 전투에 대해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긴 부제의 결론에서 ‘충절을 세운 자는 백세가 지나도록 죽지 아니한 자로다.’ 하였으며, 시문에서도 ‘죽음에 임해서 죽는 것은 죽어서도 슬프지 않다’는 비분강개하고도 가슴 몽클한 추모시를 써 戰魂을 弔喪하고 있다.

3.3.5 郡守 劉守鉉의 시

暮山無語血川哀 저문 산은 말이 없고 핏빛 혈천 슬픈데
七義蹟前纔百回 칠의사 제단 앞으로 백번 돌아 둘러있네.
戰氣滄茫江月墜 전쟁터의 기운 창망하여 강가 달 떨어지고
精靈彷彿峽風來 영혼이 어렴풋 골짜기에 바람 불어 오네.
窮搜往蹟磨新碣 사적지를 궁색하게 찾으며 새 비갈 다듬고
傾力全鄉舊舊拾 온 고을 힘 기울여 지붕 들어 수리하네.
適值農閒功告歇 마침 농한기라 순절의 공 이따금씩 알리고
且將香醪醉菜杯 또 향례 갖추고 나물 장만해 제주 올리네.

일제시대 석주관은 방치되어졌다. 35년 동안 압박과 설움에서 살았던 시대가 지나고 해방이 되었지만, 1948년 당시의 사회는 여전히 혼란하였

다. 그 속에서 구례군수 유수현이 석주관에 있는 비갈을 만들고 다시 지붕을 개축하고 제사를 올리고 있는 시이다. 궁색하나마 농한기에 향례를 갖추고 제주를 올린다고 읊었다. 유수현은 1948년 3월 25일에서 1949년 7월 30일까지 17개월 동안 구례군수로 재임하면서 석주관 칠의사묘 앞에 있는 七義士殉節事蹟碑를 세웠으며, 「七義士殉節事蹟記」³⁵⁾를 쓰기도 했다. 그 후 유수현은 해남군수로 전출되었던 인물이었다.

이 밖에 司諫院의 정6품 正言 벼슬을 했던 宋祥淳(1842~1921)이 쓴 추모시의 경구와 미구에는 “뒷날에 등 십지 돋우며 사책을 보고/ 행인은 칼 장단 치며 용대를 가리키고 있네// 새로 지은 사당에 옛날의 한이 함께 생기니/ 백발이 된 유손들과 의를 맺는 술잔을 드네”³⁶⁾라고 썼다. 석주관 전투의 역사 책을 보며, 칠의사에게 술잔을 올리면서 후손들과 의를 맺는다고 하였다. 송상순은 제주 출생으로 1863년 별시 문과 갑과로 급제하여 求禮懸監을 지냈기에 석주관칠의사에 관심을 갖고 새로 지은 사당에서 자손들과 함께 추모시를 읊은 것이다.

또 석주관에는 1888년 구례군수를 지냈던 郡守 南宮杓, 순천부사와 南原府觀察使 출신으로 매천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白樂倫, 知郡 李載憲, 知郡 李敦行의 추모시도 새겨져 있다. 매천이 1900년 경자년에 지은 시 가운데 <李守敦行以萬壽節約, 郡中衿紳, 行望賀禮.-->³⁷⁾라는 시가 있어 이 돈행은 칠의각 건축 당시 구례 군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석주관 시판에 새겨진 官人들의 시가 모두 6수나 되고 있다.

석주관에는 매천의 시제자였고, 매천의 장남 白樵 黃巖顯(1880~1946)의 스승이었던 西堂 尹鐘均(1861~1941)이 지은 추모시도 있다. 구례의 대표 가문인 윤조류의 柳濟陽이나 중앙 명사로 구례에서 살았던 海鶴 李沂가 지은 시도 있고, 潮西過客이 지은 시도 걸려있다. 특히 호서과객의

35) 『求禮石柱關七義士』, 구례군 목포대학박물관, 1990, 234쪽.

이중현, 『구례석주관 칠의사지』, 상산문화재단, 2010, 72~73쪽.

36) 異代挑燈看史策, 行人擲劍指戎臺. 新祠舊恨同時作, 白首遺孫結義臺.

37) 『梅泉全集』(1권), 전주대 호남학연구소, 1984, 412쪽.

시는 『留載邑誌』에서 발췌된 시로 되어 있지만, 매천의 주변 인물 宋厚春의 시가 틀림없다. 매천의 시에 <夜宿五峯書齋, 邂逅湖西客宋厚春是憲, 留與共賦-->³⁸⁾라는 시가 그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석주관에 있는 추모시들은 칠의사의 후손들, 鄕班이나 관심 있는 문인, 또는 구례군수들이 석주관에 모여 제사를 올리면서 쓴 시들이다. 그 중에서 매천이 칠의각을 낙성하면서 매천의 知인들이 중심이 되어 읊은 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매천은 구례에 살면서 全國的인 名士와 사귀었고, 그들과 많은 시문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매천의 知人 가운데 이견창이나 이견승, 이견방 등 江華學派와 강위, 김택영, 정만조 등 한양을 중심으로 한 중앙 명사들이 쓴 추모시는 송병순의 시를 제외하고 없었다. 매천과 친분이 각별했던 念齋 宋泰會나 호남 3걸로 추앙받고 있었던 전주의 석정 이정직이 쓴 추모시도 없었다. 석주관칠의사에 대한 이들의 추모 시가 없다고 해도 석주관에 있는 시문들이 낮게 평가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디까지나 석주관 사적지는 구례지역의 현안 문제였고, 칠의사의 후손들과 구례를 주축으로 한 시인과 官人들의 관심사의 반영이었기 때문이다. 석주관에 새겨진 추모 시들은 제작 연대와 숫자로 보아 조선 말기에 구례 지방을 중심으로 漢詩 文學이 크게 융성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지방 漢文學史的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4. 結語

1597년 丁酉再亂 당시 9월 하순부터 11월 사이에 2차례 구례 석주관 전투가 있었다. 이 구례 석주관 전투에서 殉節한 七義士와 당시 義兵에 참여했던 先人들을 추모하기 위해 칠의사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석주관에

38) 위의 책, 393쪽.

祭閣을 만들고, 제사하며 추모 한시를 썼다. 이 시문들의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명각에 새겨진 시판의 시문들은 순조 임금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써진 것들이었다. 칠의사의 후손이나 구례의 文人 또는 석주관을 개축했던 구례 官人들이 제사를 올리면서 추모시를 썼고, 詩板의 시를 새긴 것이다.

7의사의 후손 중에서 칠의사의 한사람이었던 왕득인의 후손인 개성왕 씨들의 작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정익의 후손들이 많았다.

후손이 아닌 경우에는 매천 황현의 시문이 제일 많았다. 또 매천 주변 인사들의 시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매천이 칠의사의 후손들과 구례의 대표 가문이었던 二山 柳濟陽이나 관료 출신 兼山 白樂倫과 같은 시인들과 교감을 갖고, 구례사회에서 詩作이나 詩社 활동을 왕성히 한 결과였다. 1901년에 칠의각을 만들면서 매천은 칠의각 上樑文과 柱聯을 짓고, 칠의사를 추송하는 3편 4수의 시를 썼다. 하지만 칠의각 시판에 새겨진 시는 매천이 알고 있었던 중앙 문단이나 다른 지방 名士들의 시는 아니었다.

또한 이 추모 시문들을 통해 1900년을 전후한 조선 말기에 개성왕씨 가문과 매천 황현이 구례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층으로 구례 사회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었으며, 이 시기에 구례의 詩壇이 크게 융성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석주관 제명각의 시문들은 漢文學史的으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석주관의 시판에 새겨진 추모 시들은 형식상으로 볼 때 모두 칠언율시였다. 그리고 시문의 주제는 한결같이 왜란 당시 칠의사의 忠節을 찬양하고 석주관의 史蹟을 읊은 것으로 우리에게 歷史意識과 民族意識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교육적으로도 愛國心을 불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들이었다.

참고문헌

『求禮郡誌』(上·中·下), 구례군지편찬위원회, 2005.
 『求禮石柱關七義士』, 구례군 목포대학박물관, 1990.
 『국역 勉庵集Ⅱ』, 민족문화추진회, 1984.
 『梅泉集』, 청구문화사, 1979.
 『梅泉全集』(5권),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續修求禮誌』(上·下), 1962.
 문승이, 『石柱關七義士詩文』, 구례향토문화연구회, 2008.
 이종현, 『구례석주관 칠의사지』, 상산문화재단, 2010.
 王粹煥, 『開城家稿』, 상해, 1913.
 黃玿, 김영봉역, 『역주황매천시집』 속집·후집, 보고서, 2010.
 黃玿, 이병기·김영봉역, 『譯註梅泉黃玿詩集』(上·中·下), 보고서, 2007.
 崔昇孝, 『文墨萃編』(上·下), 미래문화사, 1985.
 金正煥, 『梅泉詩派研究』,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宋正炫, 『朝鮮社會와 壬辰義兵 研究』, 학연문화사, 1998.
 이병기, 『上樑文에 대하여』, 『梅泉黃玿散文研究』, 보고서, 1995.
 장선희, 『開城家稿研究』, 『古詩歌研究』 12輯, 한국고시기문학회, 2003.
 趙浚來, 『임진왜란과 湖南地方의 義兵抗爭』, 아세아문화사, 2003.
 趙浚來, 『丁酉再亂과 石柱關 義兵抗爭』, 『求禮石柱關七義士』, 구례군·목포대학박물관, 1990.

투고일 : 2011년 1월 7일, 심사 : 2011년 1월 17일~ 2월 11일, 게재확정 : 2월 15일

[Abstracts]

The study of the cherished Chinese poetry on seven loyal soldiers

Kim, Young-Bung

Seven-martyrs(七義士) were killed Jung-Yu Jae Ran(丁酉再亂) in 1597 Seok-Ju Kwan(石柱關) in KuRae(求禮). This article analyzed about 50 poems on the poem plate which were engraved in Jae-Myong Kak(齊明閣) of Seok-Ju Kwan(石柱關) in KuRae(求禮).

Writings on the poem plate engraved in Jae-Myong Kak(齊明閣) had been written during many generations. Poets were written and engraved on poem plate by Seven-martyrs(七義士)'s descendants, writers and officials of KuRae(求禮), doing performance. All of writings were ChilEun-YulSi(七言律詩) in style. Among them there were more writings of GaeSung Wang family(開城王氏) of Wang Deuk Een(王得仁), one of seven martyrs descendants than any other men. There were too much MaeCheon Whang Hyun(梅泉 黃玿)'s writings if not descendants. The writings of people were leading role surrounding MaeCheon(梅泉).

This was because MaeCheon(梅泉), the descendants of seven-martyrs, Yu-JaeYang(柳濟陽), people beside MaeCheon(梅泉), they built Chil-Eui Kak(七義閣) writing poems and engraving them. This was reflected by leading KuRae(求禮) society of GaeSung Wang family(開城王氏) and MaeCheon(梅泉) at that time and by prospering poem circumstances. The theme of all writings were praising serving loyalty of seven martyrs, and mentioning the history of Seok-Ju kwan(石柱關) and it was enough

to inspire us with the spirit of patriotism.

Key words : the Japanese invasions(倭亂), the Seok-Ju Khwan of KuRae battle(구례 石柱關 전투), Seven-martyrs(七義士), Chinese poetry, GaeSung Wang family(開城王氏), MaeCheon Hwang Hyun's Poetry(梅泉 黃玆 詩), ChilEun-YuISI(七言律詩)